

# 정답 및 해설

## • 11~15 문법 •

### 정답

1	①	2	③	3	②	4	③	5	⑤
6	②	7	⑤	8	④	9	⑤	10	②

### 해설

#### 1. [출제의도] 한글 맞춤법 이해하기

{정답이 정답인 이유}

- ① ‘주검’은 ‘죽- + -엄’과 같은 형태소로 분석할 수 있다. 어근인 ‘죽-’의 뜻은 유지하고 있으나, 접미사 ‘-엄’이 여러 어근에 널리 결합하지 못하고 일부 어근에만 결합해서 소리대로 적은 예에 속한다.

{오답이 오답인 이유}

- ② ‘아프다’는 ‘알- + -브- + -다’로 분석할 수 있으며, 접미사 ‘-브-’는 여러 어근에 널리 결합하지 못하고 일부 어근에만 결합하는 접미사이다.
- ③ ‘얼음’은 ‘얼- + -음’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, 어근의 본래 뜻이 유지되고 있다.
- ④ ‘호른’은 ‘호르- + -(으)ㄴ’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,
- ⑤ ‘물음’은 [무른]으로 발음되지만, 체언의 의미가 쉽게 파악되도록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히고 있다.

#### 2. [출제의도] 한글 맞춤법 이해하기

{정답이 정답인 이유}

- ③ ‘집을 떠난지’에서 ‘지’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띄어 써야 한다.

{오답이 오답인 이유}

- ① ‘한번은’에서 ‘한번’은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붙여 쓴다.
- ② ‘한국을 떠난 지가’에서 ‘지’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띄어 써야 한다.
- ④ ‘얼마인지’에서 ‘지’는 ‘-ㄴ지’ 어미의 일부이므로 붙여 쓴다.
- ⑤ ‘내가 몇 등일지’에서 ‘지’는 ‘-ㄴ지’ 어미의 일부이므로 붙여 쓴다.

#### 3. [출제의도] 음운의 변동 탐구하기

{정답이 정답인 이유}

- ② ‘끝인사’는 ‘ㅌ’이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 [ㄷ]으로 교체된 후, 연음이 되어 [끄딘사]로 발음된다. ‘첫여름’은 ‘ㅌ’이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 [ㄷ]으로 교체된 후, 자음과 반모음 ‘i’ 사이에서 [ㄴ]이 첨가되고, ‘ㄷ’이 비음 ‘ㄴ’에 의해 비음화가 되어 [첫너름]으로 발음된다. ‘색연필’은 자음과 반모음 ‘i’ 사이에서 [ㄴ]이 첨가된 후 ‘ㄱ’이 비음 ‘ㄴ’에 의해 비음화가 되어 [생년필]로 발음된다. 즉, ‘끝인사’는 음운의 변동이 한 번만 일어났으며, ‘첫여름’과 ‘색연필’은 음운의 변동이 두 가지 이상 일어났다. 또한 ‘첫여름’과 ‘색연필’은 ‘ㄴ’첨가라는 첨가 현상과 비음화라는 교체 현상이 공통적으로 일어났다.

{오답이 오답인 이유}

- ① 축약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.
- ③, ④ ‘첫여름’과 ‘색연필’은 음운의 개수가 늘어났으며, ‘끝인사’는 음운의 개수에 변함이 없다.
- ⑤ 음운의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.

#### 4. [출제의도] 시간 표현 탐구하기

{정답이 정답인 이유}

- ③ ㄴ은 ‘어제’라는 부사어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나지만, ㄷ의 ‘내일’은 부사가 아닌 명사로 쓰인 것으로 부사어를 활용한 시간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.

{오답이 오답인 이유}

- ① 선어말어미 ‘-는-’을 통해 현재시제임을 알 수 있다.
- ② 선어말어미 ‘-았-’을 통해 과거시제임을 알 수 있다.
- ④ ㄷ에는 ‘시작할’에서 미래 시제 관형사형 어미 ‘-ㄹ’이 나타났다. ㄷ에는 ‘먹던’에서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 ‘-던’이 나타났다.
- ⑤ ㄱ에는 선어말어미 ‘-는-’, ㄴ에는 선어말어미 ‘-았-’, ㄷ에는 선어말어미 ‘-겠-’이 나타난다.

#### 5. [출제의도] 사전 활용하기

{정답이 정답인 이유}

- ⑤ ‘철수가 편지에 뭐라고 썼어?’는 ‘쓰다1 ②’의 예이므로 적절하지 않다.

{오답이 오답인 이유}

- ③ ‘쓰다1’은 문형 정보를 통해 부사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.
- ④ ‘쓰다1’은 동사이고, ‘쓰다6’은 형용사이다.

6. [출제의도] 한글 맞춤법 이해하기

{정답이 정답인 이유}

- ② ‘않는’은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구별되도록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은 것이다.

{오답이 오답인 이유}

- ③ ‘놀이’와 ‘노름’의 어근은 ‘놀-’로 같지만, ‘놀이’는 본뜻이 유지되어 형태를 밝혀 적고, ‘노름’은 본뜻이 유지되지 않아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.
- ④ ‘부끄럽-’은 ‘붓그리- + -업-’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, ‘-업-’은 여러 어근에 널리 결합하지 못하고 일부 어근에만 결합하는 접미사이다.
- ⑤ ‘잠’과 ‘웃음’은 모두 접미사 ‘-음’이 결합되어 있으나, 본뜻이 유지되어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다.

7. [출제의도] 한글 맞춤법 이해하기

{정답이 정답인 이유}

- ⑤ ‘무엇부터 해야 할 지’에서 ‘지’는 어미 ‘-지’의 일부이므로 붙여써야 한다.

{오답이 오답인 이유}

- ① ‘한번’은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부사이므로 붙여쓴다.
- ② ‘한 번’의 ‘번’은 일의 횟수를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.
- ③ ‘왔는지’의 ‘지’는 어미 ‘-지’의 일부이므로 붙여 쓴다.
- ④ ‘나간 지’의 ‘지’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.

8. [출제의도] 음운의 변동 탐구하기

{정답이 정답인 이유}

- ④ ‘먹히다’에서는 축약 현상이 나타났으나, ‘눉다’에서는 탈락 현상이 나타났다.

{오답이 오답인 이유}

- ① ‘결단력’은 된소리되기와 비음화가, ‘눉다’는 된소리되기와 자음군단순화 현상이 나타났다.
- ② ‘결단력’과 ‘눉다’는 된소리되기의 교체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.
- ③ ‘결단력’과 ‘먹히다’는 음운의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.
- ⑤ ‘먹히다’는 축약으로 인해, ‘눉다’는 탈락으로 인해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.

9. [출제의도] 시간 표현 탐구하기

{정답이 정답인 이유}

- ⑤ ㄱ에는 선어말어미 ‘-ㄴ-’이, ㄴ에는 선어말어미 ‘-았-’이 나타나지만, ㄷ에는 선어말어미가 나타나지 않았다.

{오답이 오답인 이유}

- ①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‘-ㄴ-’을 통해 현재 시제임을 알 수 있다.
- ② 부사 ‘어제’와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‘-았-’을 통해 과거 시제임을 알 수 있다.
- ③ ㄱ에서는 부사어 ‘곧’ ㄷ에는 부사어 ‘어제’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.
- ④ ㄷ에서는 ‘갈’에서 관형사형 어미 ‘-ㄴ’, ㄷ에서는 ‘본’에서 관형사형 어미 ‘-ㄴ’을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.

10. [출제의도] 사전 활용하기

{정답이 정답인 이유}

- ② ‘이르다1’과 ‘이르다3’는 문형 정보를 통해 부사어를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.

{오답이 오답인 이유}

- ④ ‘이르다1’은 동사이고 ‘이르다3’는 형용사이다.